

제4차 원전해체 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국내 원전해체 산업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제4차 원전해체 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제4차 원전해체 산업 민관협의회는 서울, 대전, 경주 3곳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8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중앙연구원(대전), 한수원 본사(경주) 3원 화상회의로 「제4차 원전해체 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간사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이병식 단국대학교 교수 2명의 공동회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권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등 정부, 지자체, 산학연 기관장과 교수 16명이 참석하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인사말에서 “5월에 원안위에 제출한 최종해체계획서의 승인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원안위 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원전해체 추진 동력이 생겼다”면서 “해체 R&D 예타도 조속히 통과되어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원자력 생태계 유지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성 산업부 실장은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원전해체 R&D 예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체 관련 제도 기반 구축을 통해 해체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기석 과기부 과장은 “원전해체 현안은 단연 R&D 예타사업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 산업부와 관계기관, 원자력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의 2017년 발족 이후 현재까지 민관협의회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공동회장인 이병식 단국대학교 교수가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한수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두산중공업이 원전해체 R&D 예타 추진현황과 기관별 해체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재훈 한수원 사장 주재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국내 해체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자유토론 및 의견교환 시간에 구정희 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 소장은 “체계적인 해체 기술 확보, 고리 및 월성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효율적 관리, 해체폐기물 핵종 기술 확보 등 해체산업을 둘러싼 현안의 조기 해결이 해체를 준비하는 관련기관과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 처분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체 인허가에 소요되는 긴 시간은 원자력계 경쟁력 확보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캐나다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SMR 표준 규제심사를 해서 산업을 활성화했다”면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규제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고리 1호기 해체 일정 지연으로 인해 원전해체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가 많은 상황이며 구체적인 해체 착수 시기 또는 예산 투입 일정을 공유하면 기업이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해체 산업 민관협의회는 2017년 12월 8일 정부와 원전해체 공공기관 및 전문기업, 학계, 연구계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발족하였으며, 정부의 「원전해체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5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MIF**

「퇴직자·재직자 경력전환교육」 원전해체 기본과정 (2차) 시행



이번 원전해체 기본과정(2차)에서는 교육생 자기소개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총 37명이 원전해체 기본과정(2차)을 수료하였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퇴직자·재직자 경력 전환교육」 원전해체 기본과정(2차)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생 간 거리를 확보하고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엄수하였다.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이번 교육은 원자력분야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원전기업 재직자와 퇴직자 37명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분야로의 경력전환 지원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꾸러졌다.

교육 1일차에는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 국내외 원전해체 시장 동향, 원전해체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됐으며, 2일차에는 해외 원전해체 사례 분석,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 원전해체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및 공정표 개발 기준 강의를 진행됐다.

3일차부터는 해체 엔지니어링 및 인허가 기술, 해체비용 및 사업관리기술, 작업자 방사선 안전관리, 원격제어기술, 절단 및 철거기술, 제염기술 등 해체사업 분야별 기술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강의와 코로나19로 인해 금지된 해체 현장방문교육을 대체하여 영상물을 활용한 고리 1호기 해체 현장 간접 체험과 고리 1호기 해체 준비현황에 대한 강의를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발간한 '제염해체기술지침서'와 강사가 준비한 강의교안을 모은 자료집,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간한 '고리 1호기 해체 Q&A' 등을 제공하여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생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퇴직자 및 재직자의 경력전환을 위해 품질/안전, 프로젝트관리, 용접/재료, 방사선 분야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전해체 분야 교육(기본과정)은 매년 상·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다. **KIIF**

제2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포럼 개최

혁신형 SMR 개발 지원방안 모색 위해 국회·산·학·연·관 한자리에
제도지원·예비타당성조사 지원분과 운영 경과 등 발표



제2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한 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 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2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화상회의가 9월 15일 열렸다.

회의에는 포럼 공동위원장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원자력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 유관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국회일정 등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제도지원분과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이광재 의원, 유동수 의원, 김주영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형두 의원, 이영 의원이 영상메시지로 참여했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 화상회의는 지난 4월 포럼 출범식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2개 지원분과 운영 및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경과와 성공적 개발전략, 수출 사업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 원전 수출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SMR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은 제도지원분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분과 및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형 SMR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2일 사업 타당성 확보 및 재원 마련을 위한 5,800억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절차가 진행중

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포럼 공동위원장이던 이원욱 의원은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식 의원은 “현재 심사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꼭 통과되어 적기에 혁신형 SMR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으로써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R는 원자력 산업의 신성장 동력일뿐 아니라 미래에너지로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030년을 전후해 확대가 기대되는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등 원전 설계기술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각자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를 개량해 경제성, 안전성 및 혁신성이 대폭 향상된 ‘혁신형 SMR’를 개발 중이다. 두 기관은 2028년 인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28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의 개발을 공식화한 바 있으며,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예타사업 대상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KIIF**

〈8월호〉 바로 잡습니다.

19쪽	2단 8번째 줄	Edidngton → Eddington
19쪽	2단 19번째 줄	Atkinson Atkinson → Atkinson 삭제

충청권 원자력산업 품질 및 안전교육 시행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집합교육에는 19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충청권 원자력 품질 및 안전교육’ 집합교육 및 실시간 교육을 시행하였다.

충청권 품질 및 안전분야 종사자 및 대학생 42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COVID-19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및 Webex를 이용한 실시간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19명이 집합교육에 참석하였으며 23명은 실시간교육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였다. 특히 집합교육 시행 시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교육생 좌석 간 2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엄수하였다.

이번 집합교육은 ‘한수원 품질보증 프로그램(고병석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 실습(송두고 수산이앤에스 이사), ‘원자력 품질용어 및 CFSI(김행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부장), ‘품질보증감사 실습(윤석준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등의 품질보증 기본개념 과정부터 실습과정까지 총 14시간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한편 집합교육 전 온라인교육원을 활용하여 원전 경고신호,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원자력품질보증과 품질문제 사례, 원자력 품질보증 감사, 원전 품질보증시스템 및 품질경영시스템, 방사성폐기물관리 품질보증체계, 기술기준 및 표준 등 13개 과목에 대하여 15일간 온라인교육이 이루어졌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산업 품질 및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간 4회에 걸쳐 권역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IIF**